

여학생들만 노리는 ‘의문의 번호’...“혹시 경희대 다니셨나요?”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여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해 “같은 대학 동문인데 당신을 잘 알고 있다”며 친해질 것을 요구하고, 만남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율전공학과 학생회는 지난 5월 SNS를 통해 “자율전공학과 소속 여학생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특정 번호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화를 건 신원불명의 남성이 여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전화번호 정리를 하다가 연락드렸다, 나는 학교 동문이다”라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자율전공학과 이승준(자율전공학과 2019) 학생회장은 “해당 남성이 자신을 학교 선배라고 소개하며 만남을 요구하고 매번 이름을 바꿔가며 사칭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자율전공학과 학생회에 따르면 우리학교에서 해당 사례로 접수된 건수는 8월까지 약 100회에 이른다. 해당 남성은 스스로를 ‘응용과학대학 2014학번 졸업생’, ‘약과학과 학생회 임원’, ‘경희대에서 타 대학으로 학적을 옮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 등 각기 다른 이름과 신분으로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이 스스로 근무하는 학교라고 밝힌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는 그 남성이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전공학과 학생회측은 “소속학과 여학생들에게 사칭메시지가 발송된 것을 확인한 즉시 해당 번호



“
개인 정보 유출 정황
포착 시 학교 측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로 두 차례의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별다른 회신 없이 그 다음날까지도 여학생들에게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는 ‘스토킹 혐의’로 사이버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학생회 측은 해당 남성이 실제로 경희대와 관련 있는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율전공학과 행정실, 학생지원처, 학생회를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위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데이터 중 해당 남성의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소속 대학과 전공 등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무더기로 확보했는지, 그 동기는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탓에 학생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신입생 단체톡방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정보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그런 글을 게시한 적이 없는 학생들도 연락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처는 자율전공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정보처 정보기획팀 허웅 담당자는 “2020년도에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접수된 건은 없다”면서도 “보안에 100%는 없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보처 차원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이번

사건의 내용을 반영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과 행정실이나 학생회 측에서 지원을 요청한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허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했을 때는 학생회, 학과행정실,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대, 연세대, 홍익대 등 타 대학에도 동일한 수법의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이 속출했다. 중앙대 경영학부 운영위원회는 7월 소속 학부와 전공을 사칭하는 자의 연락을 경계하라고 공지했다. 연세대 총학생회(총학)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21일 서대문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고발했다. 연세대 총학이 수집한 연세대 내 피해 사례는 65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작년에는 강남대, 재작년에는 서울대의 학생들이 이번 사례와 유사한 패턴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7년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교직원으로 신분을 사칭한 자가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만남과 성상납을 요구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또, 수년 전부터 서울,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본인을 특정 대학 학생회 임원, 모 명문대 재학생 등으로 사칭한 한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모르는 여성의 가방에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남겨두고 이후 연락을 유도하거나 협박하고, 일부 여성을 스토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생·재입학생 우정장학 신청 안내

1.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2. 신청자격
 - 2020-2학기에 정규학기 재학중인 복학생·재입학생
 - 2020-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및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자
 - ※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우정장학 수혜불가
 - 2020-2학기 기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가능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6년제 의학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하여야 함
 - ※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4. 신청기간 : 2020.09.01.(화) ~ 10.04.(일) 24:00 [5주간]
5. 신청방법 : 인포21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6. 지급일정 : 2020.10.23.(금) 예정

7. 지급기준

소득분위	지급기준	소득분위	지급기준
0 ~ 3	등록금 전액맞춤	6	1,500,000원
4	2,100,000원	7	1,200,000원
5	1,800,000원	8	600,000원
8. 지급방법
 -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 등록금 미대출자 : 인포21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이체지급
9. 지급제외대상
 - 2020-1학기 성적이 있는 2020-2학기 재학생
 - 복학생의 경우 휴학학기에 우정장학을 수혜하고 등록 휴학한 자
 - 복학생의 경우 휴학학기에 전액장학을 수혜하고 등록 휴학한 자
 - ※ 국가교육근로장학, 학업장려비, 생활비 등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은 제외
 - 2020-2학기 휴학자
 - 2020-2학기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10. 문의 : 학생지원센터(장학 Tel. 02-961-0045~6)